

광양시,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추진 '탄력'

중간보고회 개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 용역 분석결과 국토부·한국철도공사에 제출 계획

광양시는 지난 7일 KTX-이음 광양역 정차 타당성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고회는 정인화 광양시장, 백정일 경전선 KTX-이음 민간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타당성 분석내용을 보고받고 추진상황에 대해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 보고 결과,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례해 앞으로 광양시의 KTX 광양역 정차 추진이 더

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비용편익분석은 무정차, 3회, 5회, 10회 정차로 나누어 분석했고, 그 결과 무정차보다 정차 횟수가 많을수록 비용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분석이 높은 이유는 광양역의 역사 및 기존 시설 활용 여건이 확보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 건설비용이 필요 없고 장래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광양역에 주차장 추가 조성, 도로 개선 등 시설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장래 이용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제언도 이어졌다.



광양시는 이번 용역의 분석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 올 하반기에 결정될 경전선 KTX-이음 노선 계획에 광양역 정차가 반영되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는 광양시민의 오랜 염원이

있던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까지 확보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우리 시에 경전선 KTX-이음이 반드시 정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구례 '탄소중립 흡살리기' 국회토론회 준비 총력 김순호 군수, 22일 '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주제 토론회 홍보

구례군이 탄소중립 흡 살리기 국회토론회 주제를 통해 흡의 가치 알리기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 2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토론회 주제를 통한 탄소중립 흡 살리기 실천 방안 논의 등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관계부처, 농업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요소인 흡의 역할과 방향성 및 탄소중립 흡 살리기 성공 조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및 서동용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토론회가 흡의 소중함과 흡 살리기 방향성 알기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례=오광범 기자

순천, 지하도상가 '씨내물' 2분기 빈 점포 입점자 모집

순천시가 오는 20일~ 21일 소상공인들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하도상가(씨내물) 빈 점포 13개소의 입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개모집 대상점포는 일반점포 7개소(식·음료점포 1개소 포함), 뷰티·힐링점포 2개소, 청년점포 4개소다. 일반점포의 경우 가격제한사에 의해 최고가 낙찰자가 선정되는 일반경쟁 입찰로 이루어지며, 뷰티·힐링점포, 청년점포의 경우 제안공모에 따른 서면평가로 선정된다.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하여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시 정책변화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조회 가능하며, 20일에서 21일 18시까지(1200~13:00 접수 불가) 지하도상가(씨내물) 관리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하도상가 입점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씨내물 관리사무소(061-749-3580)나 순천시 경제진흥과 지역경제팀(061-749-58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조순의 기자

보성, 내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60억 확보

별교읍 옥전·무안마을, 문덕면 내동마을 공모 선정

보성군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4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3개 마을이 선정돼 국비 등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별교읍 ▲옥전마을, ▲무안마을, 문덕면 ▲내동마을이 각각 선정됐으며, 마을별 사업비는 약 20억 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이다.

3개 마을은 4년 동안 방치된 빈집과 슬레이트 등을 철거하는 주택 정비 사업, 마을 안길 정비와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보성군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 전라남도의 1차 평가와 농식품부의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

대된다"면서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 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 돌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성군은 2015년부터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뛰어들어 2019년부터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

/보성=장국도 기자

곡성, 지역특화작목 판촉행사 진행

오는 11일까지 농협하나로유통 광주유통센터서



곡성군이 오는 11일까지 농협하나로유통 광주유통센터에서 농산물 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촉행사는 지난 7일부터 시작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를 비롯한 곡성농협 및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멜론, 블루베리, 체리 등의 특별 판매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상철 군수, 김완술 조합장이 일일판매사원으로 활동해 1시간여 만에 준비한 물건이 완판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곡성멜론, 체리, 블루베리는 공동선별체계를 구축해 품질과 당도가 균일해 대형 유통업체 및 유통상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철 군수는 판촉 활동 중 "곡성멜론은 2022년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등록된 지역의 대표농산물이다. 또한 체리, 블루베리는 우수한 품질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품목으로, 곡성군의 주력 농산물로 성장하고 있다"고 곡성농산물을 소개했다.

/곡성=황성민 기자

"순천시민의 걸음 수가 건강취약계층 의료비로 전달"

'1억 보 시민 걷기 기부 참여자' 워크온 사전 예약접수

순천시가 8일부터 한 달간 건강과 나눔을 실천하는 순천시민 걷기 기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1억 보 걷기 기부 참여자를 걷기앱 워크온(Walkon)에서 사전 예약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순천시민의 건강 걸음수 1억 보가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2백만 원으로 기부되어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주는 시민 걷기 운동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신의 휴대폰 구글플레이(Play 스토어)에서 걷기앱 워크온(Walkon)을 내려 받아 순천시 공식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걷기기부 캠페인 예약하기로 참여하면 된다. 걷기 기부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걷기 기부증이 발급된다.

기부금은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천시약사회에서 후원하며, 암투병을 하며 힘겹게 지내고 있는 시민 2명에게 각각 1백만 원씩 의료

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매일 1만 보씩 규칙적인 걷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도 하고 자신의 걸음수를 기부하여 건강이 취약한 시민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시민 운동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4월부터 시작한 걷기기부 캠페인에 2450명의 순천시민이 매일 만 보씩 자신의 걸음을 기부하였으며, 승하, 하이덴치과에서 각각 2백만 원씩 후원하여 합쳐 4명에게 1백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보성,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안 아이디어 공모

보성군은 오는 2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널리 알리고 모금된 기부금 활용 사업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아이디어는 이메일, 우편·방문

접수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실무자 심사와 보성군 고향사랑기부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한다.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대상 1명 30만 원, 우수 2명 각 20만 원, 장려 8명 각 10만 원의 부상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성=장국도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